









# 가평군, 하천·계곡에 불법행위 하지 마세요

# 군포시, 이륜차 소음 점검



가평군이 관내 일원에 대해 청정계곡 생활SOC 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해 실시키로 했다.

앞서 군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해 하천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등을 계도한 후,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청정계곡을 조성해 왔다.

23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한 계곡정비사업과 관련해 주요 하천·계곡 내 철거한 평상 등 불법시설물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불법 숙박시설 및 야영장 등을 중점 단속해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군은 다음 달 중순까지 계곡

내 단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를 비롯해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및 야영장 운영 등을 집중 단속해 처벌할 계획이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에 무단 점용한 경우나 미등록 야영장 운영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깨끗한 하천 계곡을 돌려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청정계곡 생활SOC' 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90억여 원을 투입해 조종천, 어비계곡, 가평천 등 3곳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다음 달 준공예정인 조종천 운악산 입구일원 조종천변 불법시설을 철거한 560m 구간에는 정경다리 2개소 및 경관조명 1식과 벽화조성, 디딤석 스탠드 1개소, 데크워터 2개

소 등이 들어선다.

또 수변둘레길 690m, 데크둘레길 261m가 설치되는 등 불법이 난무했던 생태하천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청량감을 제공하고 사계절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달에는 설악면 가일2리 어비계곡 일원 관광자원 조성사업이 1년여의 공사기간 끝에 완공을 앞두고 있어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청정계곡을 선물하게 된다.

이곳에는 주차장 설치 1개소, 공원 2개소 등 방문객 편의시설 및 등산로와 연계된 친수공간이 마련되고 450m의 둘레길이 설치되는 가운데 향후 750m가 추가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경기도 청정계곡·하천 복원사업 2주년을 맞아 북면 가평천 일원에서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 SOC' 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공모사업 우선 시범정비사업'분야 1위에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이 투입됐다.

이곳에는 제령리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구 목동초 폐교를 리모델링해 가평천 방문객의 생태관광 베이 스킵으로 활용하고 지역특성과 주민공동체 활동을 반영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수변공간 편의시설 및 안내시설 등을 설치했다.

아울러 구 도대리분교 폐교를 주변 3개 마을이 북면 가평천 생태관광 네트워크의 허브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장, 체험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방문객 집중 관광지인 용소폭포의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을 구축했다.

또한 경기도 최고봉 화악산에 있는 가평천 발원지 일대에 친환경적 접근 시설을 조성해 생태관광 편의성 증대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만들고 가평천 최상류 계곡 일대의 오염원 배출예상시설을 통해 친환경 생태하천의 기초시설을 조성했다.

특히 경기도 마을디자인 학교와 용소폭포 마을간 협약체결 등을 통해 자연과 사람을 잇는, 생태보전과 소득을 잇는, 도시와 농촌을 잇는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청정계곡 지속가능 운영모델은 청정하게 복원된 계곡이 다시는 무단점유와 불법이 일상화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마을 공동체 주도로 지역특색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하천관리와 지역특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모델이다.

여기에 생활SOC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이나 물놀이장, 농산물판매장 등의 이용시설 운영과 하천정수, 순찰, 불법행위 계도,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참여형 하천관리 업무를 지역 마을공동체에 위탁, 지역주민 주도의 청정계곡·하천관리를 도모하게 된다.

최만식기자

## 6월 22일 군포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



군포시는 6월 22일 군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곳곳에서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배달오토바이 증가로 이륜차 소음 민원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산본동 산본사거리와 당동 평생학습원 사거리 등 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 이뤄졌다.

군포시와 군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3개 기관 11명이 투입된 이날 점검에서는 소음이 심한 이륜차 25대를 대상으로 배기소음과 경적소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원준근기자

점검 결과 경적소음(소음진동관리법 위반) 1건, 불법튜닝(자동차관리법 위반) 1건이 적발돼, 경적소음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불법튜닝은 경찰에서 처분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시민들의 삶에 심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점검과 단속에 앞서 이륜차 운전자들의 관련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포시는 올 하반기 안에 이륜차 소음 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원준근기자

# 여수시, 웅천 분양 현장 '뺨다방' 불법행위자 7명 적발

# 무안군, 피서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경찰서, 세무서, 부동산중개협회 여수시지회와 강도 높은 특별단속 펼쳐

이달부터 10월까지 집중운영



여수시는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현장에서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일명 '뺨다방' 의심자 7명을 적발해 경찰에 현장 인계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고 나오는 방문객

에 접근해 호객행위하는 정황을 포착, 뺨다방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건본주택 주변에서 경찰과 공조해 단속하고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했다.

18일과 19일에는 건본주택 주변 음식점과 주점가 이면도로 등에서 분양권에 대한 권리확보 서류 작성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요즘 NH관련 부동산투기조사 등 전국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이러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무자격 중개행위, 외지인 뺨다방 등이 여수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여수경찰서와 세무서, 부동산중개협회 여수시지회와 합동으로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에 따른 현장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앞선 3월에는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와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로 부동산시장 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남출기자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여가 문화생활인 차박 및 캠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수욕장 등 각 명소마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빈발하여 무안군은 이달부터 10월 17일까지 대대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이 기간 동안 인파가 모이는 해수욕장 등 주요 유원지

에 단속반을 운영하여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는 행위, 취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무안군은 '피서지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알리는 현수막을 피서지에 게시하였으며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관광객과 군민에게 배부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여행은 감소하고 국내여행이 증가해 피서지 및 행락지에 불법투기 등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무안군을 찾으시는 관광객들과 군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적극 실천하여 아름다운 휴양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불법 동물화장장 폐쇄 조치



파주시가 수년째 변칙운영 방법으로 시민의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광탄면 기산리 소재 불법 동물화장장이 폐쇄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파주시는 동물화장장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보호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진행해 왔었다. 그러나 운영자는 미미한 벌금 처벌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일명 '버티기 수법'으로 수년간 불법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었다.

이와 관련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4월 관계부서 합동 정책회의를 직접 주재해 수년간 지속된 불법 동물화장장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파주시 환경보전과는 내부 소각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렸고 동물자원과는 행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건축과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보하는 등 관계부서에서 일사분란하게 협업해 행정조치했다. 결국 운영자는 내부시설 소각로와 이동식 차량형 소각로를 모두 철거하고 장모 용품을 반출하는 등 불법 동물화장장을 원상복구하고 사실상 영업장을 폐쇄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며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향후 불법 동물화장장 운영이 재개될 경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검산동 육견 경매장도 행정대집행을 강력히 추진해 조속히 원상복구 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지자체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단속권한 확보를 위한 법개정 건의

# 수원시 장안구, 풍수해 대비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01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건설사업자에 대한 불법·불공정 하도급 등 실태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 건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이는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불법 재하도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건설공사현장에서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여전히 유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에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같은 건설공사현장 부조리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적절한 예방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된 사무(건설업 등록·말소업무 등)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도급이나 성실시공 등과 관련하여 보고, 조사, 감사 등의 실태조사 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문 상황이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만이 제약 없는 실태조사가 가능하다.

이에 위원회는 법에서 지자체장이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만 실태조사

를 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역시 관내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을 필요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건의하는 것이다.

더불어, 건의안에는 효율적인 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촉구도 동 건의안에 포함하고 있다.

본 건의안이 다음달 2일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관련부처인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되며 국토교통부에서 이루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불법·불공정 하도급 등 다양한 건설업 부조리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광수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2일, 영화동·정자동 상점가를 중심으로 하절기 풍수해 대비를 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한 이날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하여 계도를 통한 자진정비 중심으로 진행됐고, 적법한 광고물 정비에 대한 홍보물을 함께 전달하는 등 광고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안전을 위협하

는 업소에 대해서는 광고물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대응했다. 구는 이날 단속을 통해 현수막, 벽보 등 14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도로변에 방치된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은 태풍과 집중호우 시 구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와 계도를 통해 구민협조를 이끌어내어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 "가장 행복한 소통의 공간 되길" 소하도서관 '나눔서가' 개소



이웃과 도서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나눔서가 22일 광명시 소하도서관에 문을 열었다. 나눔서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독서하고 자발적으로 도서를 기증하

거나 교환할 수 있는 곳으로 소하도서관 1층 녹색쉼터에 조성됐다. 광명시는 22일 박승원 광명시장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서가 개소식을 열었다.

나눔서가에는 신간과 기증도서 1000여 권이 비치되어 있으며 별도의 대출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개인 소장도서와 나눔서가 비치 도서를 1:1로 교환하고, 교환하지 않더라도 다 읽은 책은 자유롭게 기증할 수 있다.

시는 나눔서가에 신간도서를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시민 간 도서교환과 기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소하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책 읽는 도시"를 만들고 싶어 공공도서관을 늘리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소통의 공간에서 지혜를 얻고 행복한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나눔서가를 가장 행복한 소통의 공간으로 잘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 과천시 관문초, 다목적체육관 개관

다목적체육관(자람터) 개관... 시비 8억9천만 원 지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관을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는 협약을 시와 체결하였다.

김종구 부시장은 "자람터라는 다목적체육관 이름처럼 우리 관문초 학생

들이 체육관에서 다양한 학습,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며, 나아가 시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성욱/기자

# 가평군, '지역 먹거리 전략,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가평군이 지역여건에 적합한 먹거리 전략을 위해 푸드플랜 농가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에 나선다.

23일 군에 따르면 지역 먹거리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 등의 활동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구축해 참여농가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주민에게는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푸드플랜(먹거리 전략)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올 하반기부터 먹거리 관련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 유통업체 및 학교급식 담당자, 행정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푸드플랜 수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먹거리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를 대상으로 푸드플랜 이해증진 및 품질·출하관리 등 농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생산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간 푸드플랜 생산기반 구축 참여농가 신청을 받는 등 우선적으로 농가조직화를 통한 기획생산 작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이뤄지는 가운데 자격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내년에 감자, 무, 양파, 양배추 등 4개 품목 중 1품목이상 출하할 수 있어야 하며 재배면적이 0.1ha(300평) 이상이면 자격이 된다.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설명회를 개최해 계약방식, 출하조건 등에 동의한 농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군은 관내 소비처의 수요에 맞춰 농가모집을 실시함으로써 참여농가의 생산물은 2022년부터 일정부분 안정적으로 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평의 농산물이 관내에서 우선 소비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먹거리 중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축산유통과를 신

설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93개 축산사업에 사업비 145억여 원을 들여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농산물 유통강화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이뤘 나가기로 했다.

최만식/기자

# 안양시 '사업시행자·시공사, 지역경제활성화 위해 손잡아'

건설기기를 통해 안양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관이 다시 한번 손을 잡았다.

안양시·사업시행자·시공시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23일 안양시청에서 있었다.(사진 첨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건설공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건설업체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협약은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덕현지구·비산초교주변지구·용장(아)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4개 사업시행사, 한신공영(㈜, DL이앤씨(주), 코오롱글로벌(주), 대우건설(주), 현대건설(주), SK에코플랜트(주), DL건설(주) 등 7개 시공사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안양시, 이들 사업시행자와 시공사는 공사를 함에 있어 안양관내 소재 공사·용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게 된다.

관내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하고 인력채용도 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으로 하게 된다. 관내 소재 건설장비 업체 및 지역식당 적극 이용 등도 협약서 내용에 담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해까지 호원초교주변지구 등 6개 재개발 사업지구와 지역경제활성화 협약을 체결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1천221억원 넘는 유발효과를 올린바 있다.

이날 협약에 참석한 각 지구별 사업시행사와 시공사는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사업 지구별 공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협약에 응해준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측에 감사사를 표하고, 상생의 길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원준균/기자

# 안성남 구리시장, '구리 공드린주방' 개장식 참석, 예비 창업자 격려



구리시가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구리 공드린주방(공유주방)' 제1기 예비입주자 기본교육을 시작했다.

'구리 공드린주방'은 7명 남짓의 배달형 주방 18실(한식형 16실, 중식형 2실)로 구성되어, 29회차의 이론과 실습 기본교육을 수료하고 평가과정을 거친 18명의 교육생에게 공유주방 1년간 사용(임대료 50% 감면), 사업고도화 컨설팅, 초기사업비 지원 등의 혜택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번 기본교육은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워너 셰프'로 유명한 씨알트리 유지상 대표가 '공유경제와 공유주방'이라는 내용으로 첫 포문을 열었으며, 이 밖에도 '성공 창업의 비밀'의 저자이자 한국사회적경제연구원 원장 이형석 대표, 전)쉐라톤 워커히 호텔 조리팀 총괄팀장 김주명 셰프, 요리연구가 토니오 셰프, 새틴즈소사이어티 김셋별 대표(전 심플프로젝트컴퍼니 위크 팀장) 등 유명 전문가 강의로 8월 4일까지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메뉴 및 브랜드 기획 ▲위생교육 ▲창업 관련 행정절차 ▲배달 판매의 기술 ▲운영 비법 ▲요리 전문가들의 맞춤형 팀 실습

등이다.

안성남 시장은 "우리 시는 지자체 최초로 250여평의 적지 않은 규모의 공유주방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여 배달외식업 창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사노동 e-커머스 특화 단지인 푸드테크밸리가 조성될 계획이며 노후된 도매시장도 이곳에 이전하게 되면 구리시는 식품산업에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비창업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한편, 시는 구리유통종합시장 2층 내 유희공간에 공유주방을 구축하기 위해 작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시설비 16억원(국비 70%, 시비 30%)을 확보했다. 올 1월에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억2천9백만원(국비 80%, 시비 20%)의 운영비를 추가 확보하여, 9월 개관을 앞두고 6월부터 약 250평 규모의 외식창업 공간인 '구리 공드린주방(공유주방)' 리모델링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다.

최광수/기자

# 남양주시, "쓰레기에 '맘쓰'는 시민들의 '수다'가 폭발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23일 수동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6월 맘쓰수다회'를 실시했다.

'맘쓰수다회'란 쓰레기에 마음 쓰는 엄마·아빠들이 모여 허심탄회한 '수다'를 통해 쓰레기 감량을 위한 생활 속 아이디어를 발굴·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는 지난 5월부터 지역별 찾아가는 수다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수다회에는 수동면 시민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쓰레기 감량을 위해 생활 속 실천 가능한 경험과 다짐을 공유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으며, 생분해 종이화분을 이용한 씨앗 가꾸기 체험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날 참석한 한 시민은 "가정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은 분들과

나누게 되어 뜻깊었다."라며 "앞으로도 환경을 매개로 한 이웃 간 대화의 장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유미 자치행정과장은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속,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과 시민들의 공감과 동참이다."라면서 "시민, 이웃간 소통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맘쓰수다회를 비롯한 시민참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매월 '맘쓰수다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에코클래스, 동네마실 플로깅단, 환경&공간 혁신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로 시민참여 중심의 남양주시 환경혁신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정근/기자



# 화성시, 7월부터는 명찰과 QR코드로 공인중개사 등록정보 확인하세요

화성시는 오는 7월부터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관내 공인 중개업소 2,200여 개소, 공인중개사 2,400여 명 전 원이다.

이에 시는 앞서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공인중개사의 동의를 구해 명찰과 QR코드를 제작하고 이달 말까지 배포를 완료할 계획이다.

명찰에는 성명, 사진, 소속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가 기재돼 본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업소 등록정보 역시 중개업소에 부착된 QR

코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은 "명찰과 QR코드로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으로 채택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김남주/기자



# 군포시 소상공인연합회 발족

군포시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 등을 수행할 군포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문을 열었다.

군포시 소상공인연합회는 6월 22일 군포산업진흥원 3층 컨벤션 홀에서 한대회 군포시장과 경기도의원, 군포시의원, 김용락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권익 대변과 경제적 지위 향상, 경제의 균형발전 도모 등을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된 단체로, 현재 전국에 17개 광역지역 지회와 226개 기초지역 지부를 두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 등 권익보호, 소상공인



애로사항 발굴 및 정책 건의, 회계 및 세무 법률서비스 지원, 창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 한대회 군포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개소가 지역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합회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성하 군포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앞으로 군포시 소상공인들의 조직화를 통한 협업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권익증진에 앞장서는 한편,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22번길 5 군포산업진흥원 2층에 위치한 군포시 소상공인연합회는 군포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책화를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법적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원준균/기자**

# 양주시, '양주 On-Health' 베리굿 건강혈관챌린지 1기 참여자 모집

양주시는 오는 7월 2일까지 온라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인 '베리굿 건강혈관챌린지' 1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육으로 운영해온 기존 고혈압·당뇨병 건강교실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 심뇌혈관질환의 선별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의 위험성과 정기적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높이고 만성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심뇌혈관질환자, 고위험군자, 경제활동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이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를 우대한다.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당화혈색소 등 건강검사와 건강관리에 대한 사전설문지 작성을 실시한다.

이어 경기도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제작한 교육동영상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기초지식과 영양 및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웹툰, 요리레시피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참여자의 도전의욕을 높이고 건강 생활습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나트륨 줄이Go, 건강 올리Go' 챌린지를 실시, 과제 참여율과 인증여부에 따라 우수자를 선정해 소정의 시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젊은 고혈압/당뇨 모여라~!!**

**베리굿 건강혈관챌린지**

코로나19의 지역사회의 확산방지를 위해 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30~50대 젊은 고혈압·당뇨병 질환자를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온라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대상** 30~50대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교육을 희망하는 양주시민 (기수 별 20명 이상) \*코로나19 확진환자 제외

**운영 기간** 2021. 7월 5일 ~ 7월 30일 (1기수: 4주)

**운영 내용** 고혈압·당뇨병 질환, 영양, 운동 영상교육

**참여 방법** 신청은 전화 접수

**접수 소 문의**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 031-8082-4365

**양주시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베리굿 건강혈관챌린지 1기는 오는 7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진행하며 네이버 밴드를 활용,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임·승인 절차와 출석 체크를 거쳐 영업강의를 통해 운영한다.

교육비용은 무료이며 프로그램 참여자는 오는 7월 2일까지 양주시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며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질병부담이 크고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사회적기업협의회와 함께 지역 사회를 위한 '판타스틱WEEK' 개최

제2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부천사회적기업협의회, 제15대 BIFAN 후원회와 함께 '판타스틱WEEK'를 개최한다. 부천시 어르신과 아동들에게 판타스틱한 시간을 선물한다.

'판타스틱WEEK'는 BIFAN 개최 기간 동안에 갖는 부천 지역인들을 위한 상영회와 체험행사를 말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7월 13일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오프라인 상영회를 마련한다. 7월 9~18일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

상으로 한 온라인 상영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18일까지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 부문 '비온드 리얼리티' 체험 전시에는 지역 청소년들을 초대할 예정이다.

부천사회적기업협의회는 매년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왔다. 김승모 부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 안전한 방역 시스템으로 성공적인 영화제를 개최한 BIFAN·BIFAN후원회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상영회를 통해 문화적으로 소외받는 지역 어르신과 아동들이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쌓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신경학 제15대 BIFAN 후원회장은 "사회적기업협의회·BIFAN과 함께 특별 상영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과 아동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영화제가 정기적으로 더욱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제25회 BIFAN은 7월 8일부터 18

일까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한다. 극장 중심의 오프라인 상영은 15일까지, 온라인 상영은 OTT 플랫폼 '웨이브'를 통해 3일 연장한 18일까지 진행된다. XR 부문 '비온드 리얼리티'는 1일부터 18일까지, 칸극제영화제·뉴이미지 영화제와 함께하는 'XR3' 전시는 6일부터 17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날 수 있다. 공연 및 특별상영, 도크·전시 등의 관객·시민 참여 이벤트는 부천아트벤처B39에서 진행한다.

**전순희/기자**

# 고양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평가 '원당' '삼송' 우수 사업지 선정



고양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원당과 삼송 지역이 우수 사업지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 고양시에서는 2개 지역이 우수 사업지로, 3개 지역이 보통 사업지로 선정돼 시에서 추진

하는 5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모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받았다.

'우리 동네 살리기' 우수 사업지로 선정된 원당 지역은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조화를 이뤄 전반적인 사업관리가 매우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주민 공간 조성사업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 ▲주민주도 자생조직 '배다리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거버넌스가 훌륭히 작동되고 있다는 점

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주거지 지원형' 우수 사업지로 선정된 삼송 지역은 ▲도시재생대학 '삼송3강' ▲마을 브랜드를 활용한 삼송상점가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한편, 시는 성사혁신지구 조성사업, 경의선 화전역 드론센터 건립사업, 일산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등의 핵심거점 시설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 안산시,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공모선정으로 1억6천만 원 장비 확보



안산시는 조달청에서 실시한 '2021년 제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이벤트 기반 모니터링이 가능한 비상벨 장치'를 구비한 영상감시 시스템 구매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됐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조달청으로부터 약 1억6천만 원 상당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비상벨과 방법용 CCTV가 결합된 방법용 영상감시 시스템을 지원받게 됐으며, 방법사각 지역인 시 외곽지역 버스승강장 8개소에 시범 설치해 안심 귀갓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을 통해 상용화 촉진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제품을 조달청에 신청하고, 혁신제품 시범사용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을 시범사용 후 조달청으로부터 관리전환 또는 소유권을 이전받아 계속 사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시 예산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시민의 안전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정무/기자**

#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 청년, 우리는 문경에 삽니다

### ‘로컬게더링 2021 문경’ 개최



‘로컬게더링 2021 문경: 로컬과 청년 그리고 상상’ 행사가 6월 21일 문경에코랄라 내 에코스튜디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로컬게더링은 전국의 \*로컬크리에이터에게 영감과 기회를 주기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컨퍼런스로 작년 한 해 제주, 부산, 순천, 광주, 경북 등 주요 거점 도시에서 진행됐으며 전국 로컬크리에이터의 현황과 생태계를 파악하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해왔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을 뜻하는 로컬(Local)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을 뜻하는 크리에이터(Creator)의 합성어로 지역 문화, 관광 및 자원을 기반으로 사업모델을 접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만들어가는 창업가를 말한다.

‘2021 로컬게더링 문경’ 행사에서는 로컬크리에이터, 도시청년시골과 견제로 창업한 청년들, 문경에서 두 달살이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창업을 준비 중인 달빛탐사대 등 전국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배 로컬크리에이터의 경험담을 듣고 토크쇼에 참여해 영감을 얻는 시간을 가졌으며 문경관광두레 기업인 옐오알오, 문경에 귀농해 가운아자개장터에서 희양산 막걸리를 만드는 두술도가 등 전국 17개 젊은 기업들이 참여한 특산품 전시를 함께 진행해 청년들의 열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행사는 문경청년협의체 가치살

자 주재대표의 ‘우리는 문경에 삽니다’로 시작해 울릉도에서 온 노마도르 박찬웅대표, 제주도 해녀의 추억 김하원대표와 함께 지역에서 살아남기에 대한 주제로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년의 역할과 원주민과의 상생에 대해 모색 했으며,

2부 행사는 도시콘텐츠 창작기업 어반플레이 홍주석대표의‘문화적 교류로 발견하는 지역의 가능성’을 주제로 오프닝이 시작되어 광주 컬처네트워킹 윤현석대표, 제주도 제주미니안재민대표, 목포 공장공장 흥동우대표와 함께 지역가치의 발견과 확장 그리고 지역과 지역의 교류에 대한 사례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 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경관광방상회 권혁주 반장은 “원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참신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청년들의 도전에 많은 자극과 도전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경시 남상욱 관광진흥과장은 “로컬게더링 2021 문경에 참석한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에 신선한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 지역 로컬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해 살고 싶은 문경, 방문하고 싶은 문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로컬게더링 2021 문경’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유튜브 채널인 게피랑 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한반식기자

# 경북도, 2021 경북관광두레협력PD 선정... 두레사업 본격 추진

### 2021년 경북관광두레협력PD 7명, 임명장 수여 및 워크숍 개최

경상북도는 2021. 6. 21일 ~ 2022. 3. 31까지 경북관광두레사업을 추진할 2021년 경북관광두레협력PD 7명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21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을 관광두레PD로 선발해 주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주민사업체를 발굴·육성하는 문화관광정책사업이다. 경상북도에서는 2019년도부터 추진해왔으며 지금까지 37개 주민사업체를 발굴·육성 및 3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올해 관광두레PD가 활동할 지역은 안동, 상주, 청송, 봉화, 울진(각 1명)과 구미·영천·영덕·예천 권역(1명), 포항·청도·고령·성주 권역(1

명)으로 13개 시군이며, 선정된 PD를 대상으로 6.21~22일까지 1박2일간 경북관광두레센터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경북관광두레사업의 이해(추진계획 및 추진방향)와 선배들이 들려주는 PD생활 꿀팁을 전수하고, 2021년 활동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하게 되며 이번에 선정된 관광두레PD들은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앞으로 관광두레PD는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경북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민, 방문객과 주민, 주민과 주민 사이에서 중간지원자 역할을 수행한다. 관광두레PD의 주요역할은 선정된



지역의 주민사업체를 발굴·육성하고, 발굴된 주민사업체를 대상으로 창업 상담, 경영실무교육, 상품개발, 판로개척, 홍보 등을 지원하며, 주민사업체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게 된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은 “이제 관광은 관주도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관광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며 “경북관광두레협력PD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면서 경북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주도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 포항 관광택시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 하세요

### 내 맘대로 편하게 떠나는 해설이 있는 관광택시 여행



포항시가 색다른 관광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포항 관광택시’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항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의 관광산업과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더 높이기 위해 포항 관광택시 마련을 통해 개별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포항 관광택시’란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이동수단과 관광지 해설을 겸한 것으로, 포항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이다. 택시를 이용해 다양한 관광지를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으며, 이용객의 취향대로 자유롭게 코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포항 관광택시는 포항의 기본적인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추천코스 뿐만 아니라 시즌별, 취향별 코스를 기획해 포항을 처음 접하는 관광객에게 여행코스 설계에 대한 부

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또한, 추천코스 외에도 관광객이 자유롭게 관광지 선택이 가능해 나만의 여행 코스를 만들어 여행할 수도 있다.

포항 관광택시는 단순한 이동수단 뿐만 아니라 관광해설의 역할까지 수행해 맞춤형 관광에 최적화 되어있다. 특히 호미곶과 구룡포 일대인 가옥거리, 보경사, 오여사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의 경우는 두 차례에 걸친 현장 교육을 통해서 기사들이 직접 문화관광 해설을 하는데에 실전 이해도를 높이기도 했다.

포항 관광택시 이용을 위한 예약은 탑승 3일전까지 해야 하며, 포항시 관광산업과를 통한 전화예약 또는 포항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예약 모두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요금제로 기본 3시간 6만원, 5시간 9만 원이며, 추가요금은 시간당 2만 원으로 운영된다.

김기현기자

# 예천군,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률 276% 초과 달성

### 전국 평균 신청률 140% 보다 훨씬 웃돌아... 적극행정 결과



예천군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추진한 ‘한시생계지원금’ 온라인·현장 접수를 받은 결과 전국 평균 신청률 140%를 훨씬 웃도는 276%(2,210가구)를 기록했다.

당초 군은 사업비 4억 원을 배정받았으나 신청률 초과 달성에 부족 한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경상북도에 요청했으며 그 결과 총 국비 5억 5천만 원을 확보 했다.

이처럼 신청률을 초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시 생계지원TF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난해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등 취약계층 대상자를 읍·면별로 분류해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뛰며 신청 안내를 도왔기 때

문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을 찾아가 신청서를 받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김학봉 군수는 “신청률을 초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각적인 홍보와 철저한 사전 준비 등 적극 행정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이번 한시생계지원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소득재산기준과 타재난지원금 중복 지원 여부 등 심사를 거쳐 일반 저소득 586가구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소규모농가경영지원바우처 대상 1,112가구는 30만 원을 제외한 차액 20만 원을 이달 28일까지 계좌 지급 할 예정이다. 김세기기자

# 수성구, 주민의 생태적 삶을 위한 포럼 개최

대구 수성구는 지난 23일 구청 대강당에서 ‘생태적 삶을 위한 미래도시’를 주제로 수미창조 포럼을 개최했다.

수미창조(壽未創朝) 포럼은 수성구의 미래를 창조한다는 의미로, 도시의 현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포럼이다.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남효창 (사)순원구조사 이사장, 길덕한 나폴리농원 대표 및 주선희 (사)한국생태관광협회 이사가 생태교육과 관광지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했다. 신은경 자연환경해설사, 장영화 (㈜더휴엔 대표의 지정 토론, 참가자 전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은 수성구 내 생태교육이 가능한 장소 안내를 시작으로, 생태교육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자연 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또한, 비즈니스적 접

근을 통해 시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적 접근으로 생태관광도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김대권 구청장은 “오늘 우리가 구상한 생태적 삶을 위한 미래 도시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담고 있다. 포럼에 참여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우리 도시에 다양한 시사점을 준 것 같다”며 “가드닝 교육을 통한 시민정원 조성과 생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연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지난해 ‘생각을 담은 녹색 도시’를 주제로 한 수미창조 포럼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수성정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정원사 양성, 23개동에 주민들이 직접 조성하고 관리하는 마을정원 사업, 학생들이 조성하고 관리하는 학교정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영명기자



# 경주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잠정보류... “시민 부담 고려”



경주시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감소했으나 시민 부담을 고려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이다.

경주 시내버스 요금은 인센 기준 2016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른 후 5년 째 현행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경주시는 23일 오후 2시 경주시청 앞현실에서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에 대해 시행시기를 심의했다.

경상북도의 요금인상안은 일반요금 200원 좌석요금 200~300원을 인상하는 등 평균 16.1% 인상안이 주요 골자며, 경북도 내 23개 시·군 가운데 10개 지자체가 요금을 인상했

고 2개 지자체는 오는 8월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다수 위원들은 코로나19 상황에 시내버스 요금까지 인상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입장에서 요금 인상을 보류하자고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경주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14일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와 사회 각층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했다.

위원장(경주시 부시장)을 포함해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당면적으로 김호진 부시장과 김진태 도시개발국장, 위촉직에는 시의원 2명, 교수 및 교통연구원 3명, 변호사·회계사·노무사 등 3명, 여성단체협의회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대표 9명 등 17명이 위촉됐다.

한반식기자







# 7월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안전 전남관광 날개

### 여행상품 인센티브 확대 GS홈쇼핑 판촉 등 관광객 맞이 본격 나서

전라남도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행에 대비해 빈틈없는 관광서비스를 준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광객 맞이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낚시, 미식여행 등 10개 테마를 여행상품으로 운영하는 '남도여행 으뜸상품'과 농어촌, 레포츠 등 6개 분야를 체험할 '전남으로 체험여행가자 상품'의 경우 여행사 인센티브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원금도 확대한다.

무안국제공항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24일 신규 취항하는 '무안~김포' 노선 등 무안공항을 이용한 여행상품에도 인센티브를 신설해 운영한다.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는 2021년 시범운행을 27일까지 마치고 7월 1일부터 방역을 더욱 강화하면서 24개 상품을 정상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관광약자 편의를 위한 휠체어리프트 버스도 도입했다.

또한 7월부터 GS 홈쇼핑에 전남

숙박 관광상품을 판촉하고, 펫 여행, 웰니스 여행 등 코로나 일상 트렌드에 맞는 여행상품도 개발해 홍보한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도 사전에 준비하고 활동을 넓혀갈 계획이다.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국관광국제박람회(KITE 2021)에 참가해 온라인 지역 홍보관을 구축하고 기업과 기업 간(B2B) 상담을 추진한다. 7월부터는 전남관광 외국인 개별여행 체험단을 모집해 운영한다.

담양 꽃차 만들기와 조각보 만들기 체험 상품을 운영하는 일본 온라인 체험 관광상품도 운영하고 무안국제공항 국제노선 재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10월에는 '2021 K-POP 슈퍼 콘서트 in K-Original 전남'이 순천국제정원박람회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사전접수를 통해 백신접종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랜선공연도 병행한다.

최근 코로나 일상에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관광지로 전남이 급부상하고 있어 관광객 급증에 대비, 체류형 관광환경도 준비하고 있다.

7월에는 여수 웰린지파크 1단계 사업시도가, 2022년 1월에는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 리조트호텔이 착공하고, 이어 4월에는 신안 자은해양관광단지 국제문화관광타운 호텔이 준공하는 등 명품 관광단지를 차근차근 만들고 있다.

2024년까지 야간경관 특화사업 등을 통해 목포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고, 고려 청자 문화 체험 등 강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도 2023년까지 추진, 머물며 즐기는 광역권 관광거점을 조성한다.

전남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다. 7월부터 관광업계, 기관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숙박, 음식, 교통, 쇼핑, 관광안내 기능을 점검하고 친절 캠페인을 펼친다.



9월에는 블루투어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10월에는 방문의 해 성공 도민 결의대회, 12월에는 방문의 해 선포식을 계획하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을 방문한 관광객이 최고의 만족감을 느끼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전남을 쉬면서 체험하고 힐링하기에 최적지이니 많이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 진도군, '생명존중' 농약안전보관함 200가구에 보급



진도군 보건소가 자살 예방을 위해 '농약안전보관함'을 10개 마을 200가구에 보급했다.

농약안전보관함 사업은 농촌지역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마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한국자살예방협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이다.

최근 진도군 지산면 관마마을에서 진도군 보건소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자살예방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마을 주민 30여명을 대상으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설명회와 녹색 마을 생명사랑 현판식을 실시했다.

설명회를 통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의 목적, 필요성, 안전한 농약 사용법 안내와 함께 자살예방, 생명존중의 중요성도 함께 전달했다.

농약안전보관함은 진도군 군내면과 지산면 마을에 설치되며, 보건소는 분기별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농촌지역 음독사고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에 40개의 농약 보관함을 보급한 바 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농약안전보관함 이용에 따른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해당마을 주민들에 대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 보건소는 자살예방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약국과 번개탄 판매업소와 연계한 자살사고자 모니터링 강화 ▲우울증 예방교육·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강양호기자**

# 담양소방서, 물류창고 소방특별조사 등 긴급 소방안전 대책 추진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경기도 이전 쿠팡 물류센터와 유사한 관내 물류창고 8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긴급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6월21일 밝혔다.

지난 6월17일 오전 5시30분 경 경기도 이천시 소재 지상 4층, 지하 2층, 연면적 12만7000여제곱미터(축구장 크기 약 15.4배) 규모인 쿠팡물류센터 지하 2층에서 시작된 화재는 몇새 만에 완전진화 되었다.

담양소방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소방특별조사 등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박상래서장은 관내 물류센터 2개소 방문하여 화재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중점 확인 사항은 ▲ 소방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관리 상태 ▲ 전기안전관리 및 화기·위험물질 취급 ▲ 불법 구조·용도변경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이다.

박상래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고 또한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면 소방청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화재예방은 소방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으니 관계자 스스로 평소 화재취약요인은 없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소방시설 유지관리,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등 화재예방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흥곤기자**

# 장흥군새마을부녀회, 안부를 묻고 안심하는 안전마을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장흥 만들기' 발대식

장흥군새마을부녀회는 지난 22일 새마을부녀회원 20명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생활화하고,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안전마을을 만들기 위해 새마을부녀회순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의 생활이 길어지고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외출이 줄어든 어르신들의 우울증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새마을부녀회순찰대는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 어르신과 지역 주민들의 활기를 되찾아 주고, 일상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어르신과 아동, 청소년들의 안부를 물어주며 안전한 마을과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김장길기자**

또한 건강 밀반찬 3종 세트를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교통안전, 학교폭력,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여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한편 장흥군새마을부녀회는 '2021 전라남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내 학교,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살아가 수 있는 마을과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무안교육지원청, 책임교사 간 멘토링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다.

무안교육지원청은 22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 모색을 위해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많아지면서 책임교사 간 학교폭력 업무처리에 대한 사례와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대해서 실감하게 되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 결과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대해 안내하고 학교별 학교폭력 사

례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6명이 그룹을 구성하여 개별화된 멘토링을 통해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란 교육장은 "책임교사 간에 멘토링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공정한 해결을 통해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있는 연수를 구성하여 지원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 남원 농·축산물로 가장 맛있는 요리 만들기

2021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접수기간 : 2021. 8. 1(일) ~ 8. 9(월)

**공모내용**  
남원 농·축산물을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는 영상

**결과발표**  
2021. 8. 31.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작품심사**  
심사위원 10편 선정 후 국민심사 (유튜브 좋아요 득표수 평가)  
최종선정 : 심사위원 점수 50% + 국민심사 점수 50%

**출품작규격**  
아래 3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① 영상 자막 또는 화면에 남원 농산물 구입처 표기  
② 요리 방법 소개  
③ 맛있게 먹는 먹방  
※ 출품작 규격 이외 영상 촬영 장소, 내용 구성, 화질 구성 등은 자유형식으로 하되 영상 길이는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함

**시상내역**

구분	작품수	시상금	비고
대상	1	3,000천원	상금
최우수상	2	각 1,500천원	
우수상	2	각 1,000천원	
입선	5	각 300천원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1부, 약약서 1부, 출품작 1편 제출(hijins@korea.kr)

**문의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홍보계 ☎063-620-6044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참고

이거 보면 먹고 싶을걸~

# 옥천군보건소 취학전 어린이 눈정밀검진 실시



옥천군보건소는 취학전 아동 무료 시력 검진을 실시해 조기치료로 시각 장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22일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취학 전 어린이 7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시력 검진 및 눈 정밀검진을 실시했다.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한 이번 검진은 취학계층 대상으로 취학 전 아동의 눈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적기 치료를 통한 시각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날 검진에는 충북대학교 소아안과 전문의 최미영 교수, 김진원 7명이 방문해 시력·조절마비 굴절검사, 약시·사시검사, 소아안과 전문의 정밀검진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보건소는 이날 정밀검진을 받은 71명의 어린이중 11명이 안경처방, 가림치료 5명, 수술치료 5명 등 21명의 이상소견이 나타나 병원 치료를 안내했다.

옥천군보건소는 앞서 지난 4월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2~3세 어린이 418명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놀이

처럼 시력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그림시력표를 각 가정으로 배부했다.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시력검사를 통해 부모가 어린이의 눈 건강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고, 이번 정밀검진은 관내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정밀검진이 이뤄졌다.

이번 검진 결과는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눈 정밀검진에서 안질환(약시) 대상 어린이에게는 치료용 가림패치가 무료로 지원되고, 선천성 백내장, 미숙아 망막증, 사시 등 어린이 안과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수술비를 지원하여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7~8세에 거의 완성되는 시력은 평생 좌우함으로 취학 전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눈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아이들의 소중한 눈 건강을 위하여 가정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 예산군, 상수도 시설개량으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

예산군은 예산배수지의 2개소 배수지 방수공사 및 덕산정수장 시설개량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량 공사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수돗물 유출사고와 관련해 상수도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추진되며, 지난해 하반기 3억 원의 군비를 투입해 예산구배수지(3000톤) 방수공사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올해는 25억2500만 원(국비 6억3200만 원, 도비 6억2700만 원, 군비 12억6600만 원)의 사업비로 예산, 삼교, 덕산배수지 방수 및 덕산 취정수장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군은 1만8160㎡ 저장능력이

있는 5개 배수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산, 덕산, 삼교배수지의 경우 1996년 및 2000년에 각각 설치돼 20년 이상 경과했다.

이에 시설물 부식 등 안전 및 위생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전면 보수 및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덕산정수장은 덕산면 옥계리에 소재한 옥계저수지의 호수수를 취수해 1일 약 2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광역상수도 2000톤을 포함한 1일 약 4000톤을 덕산, 고덕, 봉산지역에 급수하고 있다.

이번 덕산 취·정수장 개량사업이

완료되면 1일 정수처리능력이 4000톤으로 늘게 돼 광역상수도 사용량을 절감하고 상수도사업 경영개선(군비 9600만원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수처리공정 개선을 통해 계절적으로 유입되는 조류, 철, 망간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더욱 안정적인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군 관계자는 “군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배수지 시설물 개선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정선군, 군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만들어 간다.



정선군은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정선, 여성이 안전한 정선을 위해 군민이 함께 소통하며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22일 아리센터 2층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21명에게 단원증을 수여하고 여성친화도시 제도 및 성인지정책에 대한 이해와 우수사례 등에 대한 교육 진행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비전선언문을 발표했다.

21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정책, 일자리, 안전도시, 돌봄공동체 등 총 4개의 분과 구성으로 활동영역을 세분화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함께 누리는 삶과 양성평등한 정선'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모든 정책이 성별과 관계 없이 평등한 참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돌봄 사회 구현, 여성뿐만 아니라 누구나 불편과 불안함이 없는 편리하고 안전한 정선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은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정 파트너로서 군민들의 눈과 목소리가 되어 정책 제

안 및 모니터링 등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현장활동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시민참여단과 함께 정선군만의 특화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군은 시민참여단 활동과 함께 '함께 누리는 삶과 양성평등한 정선!'이라는 비전으로 2022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수/기자

# 삼척시, 해양수산부 공모 선정으로 낚싯배 거점 항구 조성

삼척시가 지난 22일 해양수산부 주관 2022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69억 원(국비 48억 포함)을 확보해 2022년부터 5년간 원덕읍 노곡마을을 낚싯배 거점항구로 육성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개발을 통해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촌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13개소 중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삼척시가 어촌테마마을 1개소, 시군 역량강화 1개소 사업에 선정됐다.

삼척시는 낭만 넘치는 원클릭 낚시마을을 목표로 원덕읍 노실마을에 낚싯배 전용 터미널을 신축해 원덕지역 모든 낚싯배들이 노곡항을 통하여 입출항 할 수 있도록 낚싯배 거점항구를 조성한다.

이에 낚시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낚싯배 전용 항구 조성으로 향후 낚시 관광객 증가에 따른 낚시 관광도시 삼척의 위상 강화를 물론 어업 공간과 낚시 공간 분리에 따른 어촌마을 갈등 해소로 어업능률 또한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치 폐교를 매입하여 어촌테마학교를 신축해 낚시교실, 선박학교 등 각종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공간 및 원격진료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삼척시는 강원 어촌특화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귀어귀촌 교육을 실시하여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마을에 도시민 신규 유입 및 정착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폐교 운동장을 활용한 낚시테마 캠핑장, 낭만 포차거리, 힐링산책로 등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해 지역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불거리, 즐길 거리가 넘치는 해양관광도시 삼척 건설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 계기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실 어촌테마마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동원/기자



# 태안군, 꽃게 자연산란장 조성사업 확대 추진!

올해 근흥면 정산포 해역 신규 조성, 총 3개소 꽃게 자연 산란장 운영



태안군이 지역 대표 수산물인 꽃게의 자원량 늘리기를 위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2일 군은 올해 신규로 근흥면 정산포에 사각통발시설 10칸을 설치해 꽃게 자연산란장 조성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소원면 파도리와 근흥면 도항리에 각각 그물 가두리 시설 8칸과 사각통발시설 10칸을 설치해 꽃게 자연산란장을 조성하고 포란(알을 품은) 어미 꽃게 760마리를 입식한 바 있다.

그 결과, 전체 어미 꽃게로부터 총 4억 개의 유생이 방출돼 90% 이상의 산란율을 보임에 따라 올해 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

군은 올해 총 3곳의 꽃게 자연산란장에 총 900마리의 포란 어미꽃게를 입식해 자연산란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산란장에 수중카메라를 설치해 어미꽃게의 자연산란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먹이공급 및 산란장 주변 환경개선 등을 통해 자

연산란장의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수산물인 꽃게의 전략적 육성과 해역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공급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품종인 꽃게의 자원량을 늘려 어업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의 종자 방류사업의 한계를 넘어 지자체 최초로 꽃게 자연 친화적 산란장 시험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도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꽃게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수산물인 꽃게는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량이 계속 줄고 있어 안정적인 꽃게 공급을 위한 자원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재은/기자

# 당진 송악청소년운영위원회, 6월 호국보훈의 달 이벤트

당진 송악문화스포츠센터 단지 내 지난해 개관한 송악청소년문화의집의 송악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송악청소년문화의집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 호국보훈의 달 이벤트'를 진행한다.

6월1일 의병의 날, 6월 6일 현충일, 6월10일 민주항쟁기념일, 6.25 한국전쟁기념일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나라사랑퀴즈 이벤트, 호국보훈의 달 6행사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이번 달 말까지 송악청소년문화의집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우 및 좋아요를 누르고 호국보훈의 달 이벤트 게시물에 퀴즈 정답을 올리거나 6행시를 작성해 댓글을 달면 되며,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송악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이번 이벤트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날에 대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악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



위원회는 송악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평가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청소년참여기구로 송악청소년운영위원회의 네이밍인 '청산유수'는 청소년들의 부락을 흔쾌히 수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송악청소년문화의집은 9세~2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당진시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평생학습과 청소년팀으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이동원/기자

# 충북도, 29일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충청북도는 2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청렴 교육의 일환으로 청렴 문화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고위공직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1 고위공직자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연경림 기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탐정학과 교수를 강사로 초청했고, '공직자의 청렴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조항별 설명, 이해충돌의 종류, 해외 이해충돌방지법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임양기 충청북도 감사관은 “청렴은 공직자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로 특히 고위공

직자의 솔선수범과 청렴 의지 함양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공직자 청렴 교육을 더욱 강화해 공직자들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근 3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고,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1등급을 달성했다.

충북도는 올해 청렴도 최상위권 도약을 위해 '2021년 반부패청렴향상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부패 취약분야 청렴 후견인 활동, 청탁금지법 모의훈련, 청렴 일일학습, 맞춤형 청렴 교육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 한국예총 보은지회, 창립총회 및 초대 지회장 취임식

### 보은문인협회·국악협회·음악협회 3단체 참여



한국예총 보은지회는 지난 22일 보은문화원에서 “한국예총 보은지회 창립총회 및 초대 지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정상혁 보은군수, 구상회 보은군회의회장, 구양회 보은문화원장, 김명동 충북남부권역 부회장, 문길곤 충북예총 사무처장, 안후영 옥천예총 초대회장 등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가 참석해 보은예총 창립과 지회장 취임식을 축하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계자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보은예총 초대 회장이라는 중임을 맡아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입기 동안 보은군민이 문화를 향유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상혁 군수는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오계자 회장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보은예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예총은 지난 3월 23일 보은문인협회·국악협회·음악협회 등 3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보은예총을 설립, 오계자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과 감사 등 임원을 선출했다.

최만식/기자

# 남양주소방서 소방공무원, 비번에도 화재 진압으로 귀감



남양주소방서는 119구급대 소속 전준영 소방사가 지난 21일 비번날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위치한 음식점 화재로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여 큰 피해를 막았다고 22일 밝혔다.

전준영 소방사는 비번이던 지난 21일 오후 9시쯤 상가 인근을 지나가다 다량의 연기를 목격하고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직감하였다. 당황한 것도 잠시, 침착하게 119 신고 후 2층 학원의 학생 5명, 선생님 1명을 피난시키고 화재 발생 지점인 1층 음식점으로 가 소화기 3개를 이용, 화재 진압을 실시하였다.

곧이어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자 차량 부서 및 현장 안내, 수관

전개 보조 등을 수행하며 화재진압을 도왔다. 화재가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소화기를 이용한 신속한 초기진압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전준영 소방사는 “어떤 소방관이라도 화재 현장을 목격하면 본능적으로 행동했을 것”이라며, “소화기는 항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화재진압 과정에서 전 소방사는 소량의 연기 흡입 및 손 부위 2도화상 등의 부상을 입어 치료중이다.

최정근/기자

# 부산교육청, 롯데캐피탈(주)로부터 여성 위생용품 전달받아

###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여학생 대상, 보건위생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은 6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감실에서 롯데캐피탈(주)로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여학생을 위한 위생용품(1,238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석준 교육감과 정재경 롯데캐피탈(주) 경영전략부부장 등 양측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롯데캐피탈(주)은 여성 청소년의 기본적 삶의 질 향상과 보건위생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생리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도 유기농 위생용품 1만 8,000개(414만원 상당)와 위생용품 휴대용 파우치 2,020개(610만원 상당)를 지원하고, 누구나 사용 가능한 위생용품 자판기 3대(214만원 상당)를 지원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교육기부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교육청은 롯데캐피탈(주)의 따뜻한 마음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꽃피게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 윤화섭 안산시장, 씨름대회 전 체급 석권한 선수들 격려



윤화섭 안산시장은 22일 ‘2021 예천 단오장사씨름대회’에서 여자부 개인전 전 체급을 석권한 시청 씨름부 선수들을 초청해 우승을 축하했다.

매화급(60kg 이하) 이아란 선수는 지난 11일 경북 예천군 예천군문화센터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한유란(거제시청)에게 밀어치기로 첫 판을 내주며 불안했지만 2-1로 물리치고 개인 통산 5번째 매화장사에 올랐다.

또 국화급(70kg 이하)에서는 김다혜 선수가 4강에서 국화급 ‘절대 강자’ 임수정(영동군청)을 연장 접전 끝에 꺾은 뒤 결승에서 만난 김근혜를 쓰러뜨리고 자신의 세 번째 국화

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어진 무궁화급(80kg 이하) 최희화 선수는 올해 2월 설날 대회에서 패배를 안겨준 이다현 선수와의 ‘리벤지 매치’설욕에 성공해 개인 통산 7번째 장사(전하장사 2회·무궁화장사 5회)에 올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전 체급을 석권한 안산시청 씨름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씨름부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선수 격려와 함께 2005년부터 안산시청 씨름부 감독직을 맡아왔던 조경덕 감독의 퇴임을 축하했다.

최정근/기자

# 세종 장애인 유도 최광근, 도쿄행 티켓 확보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소속 최광근 선수가 지난 21일(현지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2021 유도 그랜드프릭스 대회’서 동메달을 품에 안았다.

최 선수는 국제 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IBSA)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100kg급에 출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자메이카의 테아도르(Theador) 선수를 한판승으로 제압하며 승리를 거뒀다.

이는 지난 달 아제르바이잔 대회에 이은 2개 대회 연속 동메달 획득

이다.

최 선수는 현재 시각장애인 유도 국내랭킹 1위이자 세계랭킹 5위로, 이번 대회 결과로 오는 8월 도쿄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

이준희 장애인체육회장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최 선수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선수가 세계무대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 박춘호 시흥시의회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경기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장이 22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날 전국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박춘호 의장은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평소 지역사회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현재 제8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 의장은 시화공구상가사업협동조합, 시화유 통상가사업협동조합과의 감담회를 마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흥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며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 왔다.

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서면을 통한

자료 수집은 물론, 주요 사업지 현장 직접 방문하며 실무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노력해왔다.

박 의장은 “의장이기 전에 시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왔을 뿐”이라며 “앞으로 지역과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계룡시청 펜싱팀 전국펜싱 단체전 우승



펜싱팀이 지난 18일부터 전남 해남에서 열린 ‘제50회 회재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거머쥐고 구현진 선수가 개인전에서 3위에 오르는 쾌거를 거두었다.

지난 21일 열린 단체전 결승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을 45:25로 격파하며 계룡시청 펜싱팀의 수준이 견제함을 과시했으며, 지난 18일에서 19일간 치러진 개인전에서는 신예 구현진 선수가 4강에서 경기도청 김소희 선수를 상대로 15:14로 접전

끝에 석패했다.

이러한 성과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일정이 불투명한 가운데에서도 꾸준한 전지훈련과 씬 없는 자기 관리로 실전태세를 유지하며 단련한 결과로 보여진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최홍목 시장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여 계룡시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광주시 초월읍 새마을협의회, 사랑의 감자 나눔

광주시 초월읍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이병창·백서연)는 22일 초월읍 용수리에 소재한 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사랑의 감자’ 600kg을 전달했다.

이병창·백서연 회장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직접 가꾸어온 감자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됐으며 좋겠다”고 기탁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남균 초월읍장은 “초

월읍 새마을협의회가 그동안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 초월읍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초월읍 새마을협의회는 올해 초 취임 축하화환 대신 받은 백미 기탁 및 손맛이 담긴 밀반찬 지원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끊임없는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최정근/기자







### '미드나이트' 위하준 "꿈꿨던 살인마 役 13kg 감량"



배우 위하준이 로맨틱한 연하남 이미지를 벗고 강렬한 악역으로 돌아왔다. 추격 스릴러 영화 '미드나이트'에서 두 얼굴의 연쇄살인마를 연기하며 서늘한 얼굴을 드러냈다.

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추억했다. '미드나이트'는 한밤중 살인을 목격하는 경악장재인 '경미'(진기주 분)가 두 얼굴을 가진 연쇄살인마 '도식'(위하준)의 새로운 타깃이 되면서 사투를 벌이는 추격 스릴러 영화다.

실명했다. 캐릭터를 위해 13kg를 빼는 등 외형적인 변화도 꽤했다. 위하준은 "미드나이트' 촬영 전에는 몸 상태가 별크업이 된 상태였다. 약 76kg 정도 몸무게를 유지했는데 외형적인 부분에서 날카롭게 보이도록 사전에 10kg 정도 감량을 했다.

다만 "주변 친구들이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더라. 친구들은 냉정한 편인데 이번엔 '고생하고 잘한 것 같다'라는 격려를 받았다. 가장 오래된 고향 친구가 내 작품을 보면서 절대 '잘했다'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네가 정말 배우를 하는구나'라며 좋아하더라"고 웃었다.

### '루카', '썸머프렌즈 with 에일리' 영상 공개



6월 17일 개봉한 디즈니·픽사의 감성충만 힐링 어드벤처 '루카'가 실관람객들의 폭발적인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가수 에일리와 함께한 '썸머 프렌즈 with 에일리'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이처럼 유년 시절의 소중한 우정을 떠올리게 하며 폭발적인 호평 세레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수 에일리와 함께한 특별한 '썸머프렌즈' 영상을 공개되어 눈길을 끈다.

까지 진행되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월 17일 개봉한 '루카'는 물만 닿으면 바다 괴물로 변하는 비밀을 지닌 특별한 두 바다 괴물 소년의 유쾌한 모험과 우정의 스토리로 관객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 송강호, 칸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 최종 확정



개최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제74회 칸국제영화제가 경쟁부문 심사위원 최종 라인업을 완성했다. 칸영화제 측은 2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경쟁부문을 심사할 9인의 최종 심사위원 리스트를 발표했다.

올해 칸영화제 심사위원은 전 세계 7개국에서 활동 중인 감독, 배우, 가수, 작가로 선발됐다. 그리고 올해 심사위원 성별은 여성 5인과 남성 3명으로 구성됐다.

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으로 경쟁 부문 후보 자격으로 초청됐다. 또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08, 김지운 감독), 올해 개봉 예정인 '비상선언'(한재림 감독)까지 비경쟁 부문으로 초청을 받았다.

### NCT DREAM, 정규 1집 리패키지 티저 이미지 공개 연일 화제!



6월 28일 정규 1집 리패키지 앨범을 발표하는 NCT DREAM(엔시티 드림,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새로운 티저 이미지가 공개되어 화제다.

### '펜스토랑' 어남선생 류수영, 역대급 보양식 도전! 이번엔 장어다



'펜스토랑' 류수영이 내돈내산 장어구이에 도전한다. 6월 25일 방송되는 KBS 2TV '신상출시 펜스토랑' (이하 '펜스토랑')에서는 28번째 메뉴 개발 대결 주제 '우리 고추'가 공개된다.

푸짐한 초대형 장어 한 삼에 '펜스토랑' 스튜디오는 발칵 뒤집어졌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하면 이날 류수영은 스태프들을 배불리 먹고도 장어가 남지, 남은 장어로 특별한 요리에 도전했다.

### 고민시, 화보 공개...소녀미부터 고풍미까지 다 담았다!



VOGUE

배우 고민시의 다채로운 매력이 담긴 화보가 공개됐다. KBS2 '오월의 청춘'을 통해 차세대 멜로퀸으로 우뚝 선 배우 고민시가 패션 매거진 '보그 코리아' 7월호 화보를 공개했다.

사친 속 고민시는 소녀스러운 스타일링부터 고풍미 넘치는 콘셉트의 의상까지 완벽하게 소화, 다채로운 매력으로 화보장인의 면모를 뽐내 시선을 사로잡았다.